

진정한 의사파워 -도덕성 토대



클·황정욱 |
연합뉴스 생활경제부 차장

세상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듯 하다. IT 강국이라 하고, 1인당 GNP가 1만달러를 넘어섰다고 하고,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유괴 살해는 왜 이렇게 많은지, 자식을 한강에 내던지는 아버지의 비정함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공동체적 가치파괴 우려

흉흉한 소식이 꼬리를 물고 있다. 더욱이 그 증상이 날로 험악해져만 가는 형국이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나 철학이 혼돈을 넘어 거의 아노미적 해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절로 나온다.

세대간 격차는 세대간 소통의 끈을 단절하고 있다. 이미 문화와 인식의 차이를 넘어 세대간 헤게모니 쟁탈전에 돌입한 듯한 인상까지 주고 있다. 우리의 사회 통합력이 그만큼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 부패와 정치 혐오증, 세계 최고의 이혼율로 대변되는 가정해체 현상, 이익집단의 실력행사 집착증, 노-사, 정부-언론 대립, 보혁 대결 등 전방위적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또 얼마나 시끄러울지...

사정이 이런데도 이를 관리해야할 정부는 어디

에 가 있는지, 사회적 갈등을 녹이고 조정해야 할 정치권이 한술 더 떠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온갖 개혁 구호가 난무하고 있으나 실상은 좌표없는 개혁이고 보수도 허위, 위장 보수가 허다하다. 이러니 어디에서도 우리 사회를 지탱해줄 믿음직한 버팀목을 찾기 어렵고, 끊임없는 표류만 계속할 뿐이다.

중산층, 지도층 나서 사회바로 세우야

일전에 한 의사를 만난 적이 있다. 그 분 말씀이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이 주축이 돼 부부 공부모임을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극심한 때라 이를 주체도 토론회도 가졌다고 했다.

‘참 건전하구나’ 하는 느낌과 함께 결국 우리 사회의 중심축인 중산층이 중심을 잡아주는 길 밖에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의사 한분은 친구 의사들과 어울릴 때 나라 걱정도 많이 한다고 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되어야 할 건전 보수세력이 ‘수구’로 내몰리며 도덕적 기반을 상실하는 듯한 모습을 볼 때 상당한 위기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사회주의가 끝난지 언제인데 새삼 ‘돌출 사회주의’가 판을 치고 한물간 주체사상이 나오느냐고도 했다.

나의 판단으로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견해이고 주장이며, 상식적 사고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편도 있겠지만 중산층이

제 목소리를 내줘야 사회가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모험주의, 일방주의가 줄어드는 대신 그 자리를 상식과 순리, 합리성이 자리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기 때문이다.

의사집회, ‘의료현실과 도덕성’ 기준 냉철한 평가 필요

이런 측면에서 지난 ‘2.22 의사 집회’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있다. 집회를 전후한 과정에서 ‘의사다운’ 방식이 적용됐는지도 짚어봐야 할 것 같다. 공공연하게 약사들을 감정적으로 자극한 것은 아닌지, 건강보험공단을 놓고 일방적인 주장을 퍼부은 것은 아닌지 하는 것들이다. 수가 인상분 반납 등 현실성 떨어지는 정치구호도 더러 있었다.

비내리는 겨울, 질퍽한 한강변에서 2만명이나 모일 때는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총선용 무력시위’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간과할 수 없다. 일부 기자는 집회를 보도하면서 ‘명분은 명분대로 속내는 수입 늘리기가 아니냐’는 식으로 전한 것으로 안다.

집회 성격이 어떤 것이었던 의사들의 힘은 도덕성에 기초할 때만 제대로 행사될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도덕성에만 함몰돼선 안되겠지만 현실 인식에 도덕성도 상당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고 믿는다.

건전한 중산층이 저마다 도덕성을 갖고 목소리를 낼 때 우리 사회도 그만큼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집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평가 항목에는 현실과 도덕성과의 조화가 적절했느냐 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다. 